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2019년 ‘코라시아 포럼’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사로 나서주실 태국의 아피싯 웨차치와 前 총리님, 아세안 림족호이 사무총장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과, 함께 해주신 각 정당 대표님, 각 국 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포럼의 주제도 ‘한·아세안 30년, 공동 번영의 신시대로’입니다. 바로 3일 뒤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오늘 포럼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게 다가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례적으로, 5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특별정상회의를 세 번이나 개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세안 각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각별한 정성이 담겨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2017년 11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공동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외교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구상과 의지는 한국외교의 우선순위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였습니다. 저 역시 여러 계기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의 의장단이나 의원, 또는 외교사절단을 모두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정부와 의회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4강 외교에 버금가도록 격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바로 아세안입니다. 아세안과의 인적교류는 30년 전 연간 10만 명에서 지난해 1,100만 명으로, 110배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상호간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한·아세안 공동번영의 신시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코라시아 포럼을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